

“설탕 안 짝어도 맛있다” 장성군 분향 찰토마토 출하

단맛과 짠맛 조화로워 남녀노소 인기

토마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맛으로의 첫손에 꼽는다는 ‘장성 분향 찰토마토’가 출하를 알렸다.

장성군 남면 분향리 일대에서 생산되는 분향 찰토마토는 어린아이 주먹만 한 크기에 연한 빛깔을 지녔다. 껍질은 무른 감 없이 고르게 단단하다.

외모가 평범해 보인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한 입 베어 물면 분향

찰토마토가 왜 다른 품종보다 2~3배 비싸게 거래되는지 알 수 있다.

껍질 안쪽에선 달콤한 과즙이 터지고, 속에서는 상큼하면서도 간간한 맛이 기분 좋게 퍼진다. 껍질이 단단하다 보니 식감도 상당히 좋다.

맛의 비결은 특화된 재배 방식과 경험 그리고 자연에 있다. 최소한의 수분만 작물에 공급하는 건조농

법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25년 이상 축적해 온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토마토를 빚어낸다. 여기에, 불태산 맑은 바람과 남면의 비옥한 땅이 건강함을 더한다.

남면과 광주첨단 장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2월 하순에 생산되는 분향 찰토마토가 가장 맛이 좋다.

가격대는 2kg 기준 8천원에서 1만 6천원 사이다.

광주첨단 장성로컬푸드직매장에

서 만난 주부 임모 씨(비아동)는 “아이들에게 토마토를 먹고 싶은데 설탕 없인 안 먹어서 고민하던 중 작년에 처음으로 분향 찰토마토를 구입했다”면서 “은 가족이 잘 먹어서 올해 출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짧은 기간만 맛볼 수 있는 분향 찰토마토는 장성군이 자랑하는 명품 농산물”이라면서 “올봄이 가기 전에 꼭 드셔 보시기 바란다”고 권했다. /유광종 기자

화순, 희망2023나눔캠페인 우수군 선정 성금 목표액 대비 1억 5천622만 원 초과 달성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이어진 ‘희망 2023나눔 캠페인’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화순군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화순’이라는 슬로건으로 ‘희망 2023나눔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현격한 공이 있는 우수 군으로 선정됐으며, 성금 목표액 보다 1억 5천622만 원을 초과달성해 4억 2천922만 원을 모금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전 군민과 기업, 단체 등에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모금 참여를 통해 이뤄낸 값진 성과다.

더욱이 캠페인 기간 동안 익명으로 아너 소사이어티 화순 1호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초등학교 이웃돕기 바자회 성금부터 기관, 단체, 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후원물품과 성금이 잇따라 복지사 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기탁된 물품은 저소득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소중히 전달됐고,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지원,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해소 등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함께 누리는 복지화순 만들기 위해 나눔 행렬에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군민 한분 한분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들이 우리 이웃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 ‘희망 2023나눔 캠페인’은 종료됐지만 지역 내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청년 인턴십 운영

영광군은 미취업 청년 고용 촉진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영광군 청년 인턴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 인턴십은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과 청년을 매칭해 취업을 연계하는 것이다. 청년에게는 인턴기간(1~3개월)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참여 기업에게는 사회공헌 활동 및 우수 인재 확보의 기회를 부여해 양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영광군에 소재하는 3인 이상 중소기업 중 인턴 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며, 청년인턴은 공고일 현재 영광군 주민등록 등재자로 광주·전남 소재 대학(고등) 졸업 예정자 및 직업전문학교 재학생·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미취업자 대상이며,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인턴과정 참여자는 1개월~3개월간 해당 기업에서 인턴 근무를 실시하며, 청년인턴 인건비는 월 201만 580원을 지원으로 기업은 4대 보험 가입은 필수며, 정부 등으로부터 별도 지원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참여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시 접수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진기 기자



나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2월 한 달 간 관내 중국식 업체(배달) 22곳과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홍보사업을 펼치고 있다. 1인가구 등 가가호호 찾아가는 배달업소 특성을 활용해 정신건강 서비스정보를 알리고 고위험군의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가가호호 정신건강 서비스’ 홍보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나주시 한 중국음식점 배달용 나무젓가락에 따뜻한 글귀가 새겨져있다.

이 나무젓가락은 나주시 보건소에서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상담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해 관내 중국식 배달업소에 배부한 홍보물품이다.

나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2월 한 달 간 관내 중국식 업체(배달) 22곳과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홍보

사업을 펼치고 있다.

1인가구 등 가가호호 찾아가는 배달업소 특성을 활용해 정신건강 서비스정보를 알리고 고위험군의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젓가락에는 따뜻한 문구와 함께 ‘정신건강위기사담전화’,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우선 번호가 적혀 있다.

보건소는 중국식업체뿐만 아니라

번개탄 판매점, 숙박업소, 약국·의료기관 등과도 극단적 선택 예방과 정신건강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한 생명사랑 실천 협력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건강 사각지대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업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선택 기자

담양, 군민 생활현장 규제 혁신 공모 나서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을 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며,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 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 개선안이다.

오는 3월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단순 민원성 제안, 복지 확대 정책 등 규제와 관련성 없는 사항은 제외된다.

공모전은 전문가(위원회·협회·단체)에 소속된 자, 특정 분야의 전문가 포함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담양

군 홈페이지 공시사항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irmk114@korea.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행정안전부 실무 검토와 전문가 검토, 부처 협의를 거쳐 7월중 선정하며, 행정안전부장관상(20명)과 부상품(최우수 1명 100만 원 상당, 우수 2명 각 50만 원 상당, 장려 17명 각 10만 원 상당)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생업 현장에 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체와 소상공인 등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며 “이번 공모 외에도 규제개선을 위한 민생현장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기획예산실 규제혁신팀(061-380-30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종연 기자

